

2026 설날가정예배



조상의 덕을 기리며 예배드립니다. 지난 일 년을 감사하고 새해의 복을 간구합니다.

개회 / 인도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새해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다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주의 얼굴 뵈기전에 멀리 되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기도 / 말은이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온 가족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복독 / 말은이, 여호수아 24장 14~15절

- 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설교 / 말은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은 자신만의 판단과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사실은 세상의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하게 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선봉에 서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장담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년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설교를 통해 남깁니다.

첫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섬길 자를 택하라고 외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모시고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이 믿고 결단하는 것이지만, 가정 안에서 모두가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할 때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새해를 맞아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일 년 내내 모든 가족이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 설교자

찬송 / 다같이,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